

## 역병의 재앙 앞에서 교회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말씀: 대하7:12-22

지난 몇 주 동안 우한 폐렴의 공포 전 세계 엄습,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대국 경북 지역에서 질병 발생, 확진자 급증(556명, 사망 4명),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 오명, 미국 CNN 등 TV 방송에도 금요일부터 '대구 발병'(Daegu Outbreak), '대한민국 확진자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함, 이스라엘 등 입국 금지, 다수의 사람들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 걱정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중국 공산당의 지독한 기독교 핍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여러 목사들과 현지 선교사들 증언,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중국에는 이집트 사막에 사는 메뚜기 떼 공격, 파키스탄 까지 오고 중국 국경에까지 옴, 3600억 마리, 하루에 수만 명 분 식량을 먹어치움, 역병과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 역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 지난 70년 이상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 희생, 자유를 찾고 성경대로 믿으려는 크리스천들 박해의 결과,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 무방 그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심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불뚱이 튀어서 문제 발생함, 처음부터 중국 사람들 입국을 제대로 막지 못해 인재로 이번 사고 발생, 경기도 의사협회장 이야기 현재 수십 개 국이 중국 입국 금지, 심지어 러시아 북한도 국경 통제, 이런 상황인데 국경 개방, 대학들도 초비상 중국인 유학생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 방역 요원, 경찰, 질병 관리 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길 것을 기도한다.

우리 모두 자숙하면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지난 주 설교에서 밝힌 대로 이번 사태로 인해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 있다. 신자 불신자 모두, 나도 마찬가지로, 즉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 체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우리의 앞날 특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매일 바쁘게 아등바등하면서 내 앞날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질주하였다. 이제 집에 있으면서, 속히 귀가하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을 갖기 바란다. < >

###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하7:12-22)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탈출, 다윗 시대에 왕권이 확고히 확립되고 나라 안정 다윗이 보니 자기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성막은 너무나 초라함 하나님께 간구,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심, 솔로몬이 이집트 탈출 뒤 480년 되는 해에 건축 시작(왕상6:1), 7년에 걸쳐 완공(왕상6:38), 언약궤를 그 집으로 가져감, 그리고 성전 봉헌 연설(8장),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함,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불태움(대하7:1)

그날 밤 주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남(대하7:12)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재앙, 가뭄, 메뚜기 역병(13)이 오면 해야 할 일, 셋 다 국가적 재앙, 사람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

놀라운 약속(14),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킹제임스 성경 이 부분을 펴서 읽고 위임 선서함, 최고로 좋은 성경, 미국 대통령들이 손 얹고 선서하는 성경

1.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 성경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사악한 왕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닥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닥친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재앙은 징계라고 한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벌을 주는 것, 이때에도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다.

2. 해결책: (1)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시20:7 그것도 기도하며 얼굴을 구해야 한다. 기도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앙이 닥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2).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한다. 기도하며 역병만 고쳐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한다. 악한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 철저히 뉘우치고 버리고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3. 하나님의 응답(14): 하나님이 (1) 하나님이 듣고, (2)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3) 그들의 땅을 고친다.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먼저 기도를 들어 주신다. 동시에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데 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히10:17). 이것이 사람과 다른 점이다. 사람은 결코 잊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가뭄, 기근, 역병, 폐뚜기 폐 든, 우리의 질병이든, 재정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문제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지켜 주신다.
4.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다음을 수행하신다.
  - (1)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19)
  - (2) 그들의 모든 번영을 물거품으로 만드신다(20).
  - (3) 너희의 자랑거리인 이 성전이 훼파되어 조롱거리가 된다(21).
  - (4) 그 이유(22),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심지어 이교도들도 알게 된다.

####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자(롬15:4)

대한민국의 지난 72년 역사를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히 많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한다.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세상의 으뜸가는 국가 반만 년 동안 가난에 찌들어 가장 못살던 나라, 미국의 원자탄 두 발 투하로 삼시간에 자유, 지난 72년의 번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국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여론 조사, 국민의 7-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승만을 통해 이 나라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국가를 허락하셨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국가이다. 제헌국회 1호 문서가 바로 이 기도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 중공군의 개입, 미국 등 우방들의 힘으로 극복함 그 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다.

여기에는 강력하게 성장한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1900년대 개화기부터 지난 130년 동안 이 나라의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교육, 의료, 정신 교육, 국방, 경제 전 분야 기독교의 자유, 근면 정신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나온다. 주변 국가들의 빛이 되라고

이 조그만 땅 대한민국 역시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에 빛이 되라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상 숭배,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고통, 성전 파괴, 조롱거리(21-22)

빛이 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예 실추, 이교도들에게 조롱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 마지막 보루는 교회, 썩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 성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에 하나님은 대언자 에스겔을 세우심 33장 1-6절,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3:19-21).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알려야 한다.

유다 왕국 폐망의 가장 큰 원인: 목자들 즉 지도자들에 있다. 겐34장

그들의 특성: 자기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음(2)

오히려 양들 학대(5), 직무 유기(6),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성실하지 않은 파수꾼(사56:9-12)

이 말씀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보아야 한다.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것, 여기에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목사들 교회들이 동조하고 있다.

교회가 많이 부패하였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철폐하셨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셨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식 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는 형태, 이것은 예수님이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을 더하려는 시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딘 있는가? 까딱 잘못하면 목사가 제사장이 된다. 이런 것 과감히 버려야 한다.

목사들이 부패하였다. 성도들이 부패하였다. 증표: 신천지 같이 수십 만 명의 추종자를 지닌 변종 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기현상, 이렇게 이단 종파들 많은 나라는 많지 않다.

이유: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재됨, 이교도들의 샤머니즘은 바알 숭배

이런 것이 제도권 밖에서는 신천지 같은 집단으로 나타나고 제도권 안에서는 변영 신학, WCC 종교 통합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어떻게 과천 청계산 지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단 말인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다르다. 어제 노컷뉴스, '육체 영생'을 위한 조건부 종말론으로 가정 해체와 가출, 직장 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집단의 폐쇄성과 위장 전술(신천지의 '모략' 전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수 조사 불응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신천지는 일요일에 지문인식을 통해 집회에 참석하는데 12시가 되면 명단이 다 나오게 돼 있다."며, "전국 각 지파 출석 집계를 과천에서 취합하는데 고위 공무원이나 연예인 등 공인들의 신분을 숨겨주기 위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주 21일 금요일 이만희 신도들에게 특별 편지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 죄송하고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악한 병이 날로 심각해지다가 드디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기웃거리는 일이 생겼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아먹으려는 병자들이 너무 늘어났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중복 주사와 목사들이 많다.

지난 주 홍정길 목사 설교, 지난 3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 고통스러웠다고 고백

그리고 이번 선거는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고백, 지금 이것이 기독교 계 큰 이슈 홍정길 목사: 과거의 친북 성향, 김동호 목사 등과 함께 문재인 정권 태동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

그런데 현 정부 3년 하는 것을 보니 본인이 보기에 너무 힘들다고 고백함, 양심선언

그런데 곧바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공개서한이 뜬,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해명해 달라고 함,

기윤실은 손봉호 장로가 세우 단체, 윤리를 실천하다고 하면서 중복 색채를 띠어 왔음

홍정길 목사가 전해까지 그 단체 이사장, 홍 목사가 변절한 같으니 공개 재판 요구하는 인상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도 목사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대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해방 뒤 남한과 북한의 변화와 차이를 보면서도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보면서도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이제 눈을 뜨고 바로 돌아서야만 한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기독교와 중복 주사파는 양립할 수 없다.

### 결론

다시 이야기한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가장 좋은 나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기독교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나라가 총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혼란한 시점에 우한 폐렴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하7:14, 이번 기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 목사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죄들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로 믿는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 방역 요원, 경찰, 질병 관리 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드린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94105>